

北周시기의 詩 韻部研究

李 雄 吉*

<目 次>

I. 序 言	2. 陽聲韻
II. 韻部分論	3. 入聲韻
1. 陰聲韻	III. 結 言

I. 序 言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대는 한어사(漢語史)에 있어서 대변혁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빈번한 전쟁, 잦은 조대(朝代)의 건립과 멸망, 대규모의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 북방어와 남방어가 융합되는 국면이 형성되었고, 또한 문인들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싹터 이에 대한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상고음(上古音)시대부터 중고음(中古音)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언어체계 변천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431년 선비족(鮮卑族)인 탁발씨(拓跋氏)에 의해 북위(北魏)가 건립되었다. 534년 북위 효무제(孝武帝)가 장안(長安)으로 도망 간 후 북위는 동위(東魏)와 서위(西魏)로 분열되어, 동위는 550년 고양(高洋)의 북제(北齊)로 대체되었고, 서위 또한 556년 우문각(宇文覺)의 북주(北周)로 대체되었다.

우문각의 아버지인 우문태(于文泰)의 협박에 의해 유신(庾信), 왕포(王

* 동서대학교 외국어학부 중국어전공 조교수

褒) 등의 남조 문인들이 관중(關中)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북조의 문학 기풍은 남조문학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한어사에서 위진남북조시대는 상고음시기와 중고음시기의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위진남북조시대는 세분되어지는데,¹⁾ 북주는 주조모(周祖模)의 분류에 의거하면 齊·梁·陳·隋시기에 속하고, 하대안(何大安)의 분류에 의하면 남북조 제2기 남방구에 속하며, 왕력(王力)의 분류에 의하면 제2기 남파(南派)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선진양한위진남북조시(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²⁾를 텍스트로 하여 북주시기의 문인과 민가의 시³⁾에 사용된 압운자를 통해 몇 개의 운부로 나누어지고 또 각 운부 속에 어떠한 운류(韻類)의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齊·梁·陳·隋의 운부와 北魏와 北齊시기의 운부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韻部分論

1. 陰聲韻

1) 支·脂·之·微·佳韻

支·脂·之·微韻은 魏晉시기부터 齊·梁·陳·隋에 이르기까지 支·脂·之 세 운부로 나누어졌는데, 이 시기에서는 아래의 통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支韻은 하나의 운부로 독립함을 볼 수 있다.

- 1) 周祖謨는 魏·晉·宋과 齊·梁·陳·隋 두 시기로 나누었고, 王力은 남북조시기를 제1기, 제2기, 제3기 세 시기로 나누었으며, 何大安은 남북조시기를 1기와 2기로 나누었는데, 제2기를 다시 남방구와 북방구로 나누었다.
- 2) 逢欽立 輯校, 《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 木鐸出版社, 1983年, 臺灣
- 3) 《先晉兩漢魏晉南北朝詩》에 수록된 北周의 작가는 모두 19명인데, 이 중 한 구절씩만 수록되어 있는 周宣帝, 宇文贇과 王暕를 제외한 17명의 시인과 민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리고 용례가 적어 설명할 수 없을 경우는 何大安의 《南北朝韻部演變研究》에 수록된 韻譜에서 文의 용례를 참고하였다.

	支	脂	之	微
支	11			
脂		3	4	7
之			5	2
微				15
<支·脂·之·微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그리고 위의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劉宋시기까지 支韻과 동용하여 支部에 속하였던 佳韻은 이 시기에 독용의 예가 1회 있다. 何大安은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佳韻의 진정한 독용은 齊·梁때의 劉勰에서 부터 시작되었다.”⁴⁾라 하여 佳韻을 하나의 독립적인 운부로 보고 있다. 비록 용례는 적지만 다른 운과의 통압도 없고, 何大安의 견해에 타당성이 있어 본고에서도 佳韻을 하나의 독립적인 운부로 간주하겠다.

위의 표를 보면 脂·之·微 세 운의 독용이 뚜렷하지 않다. 우선 脂·之 두 운은 상호 통압 비율이 높아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之韻과 微韻은 통계상 독용이 뚜렷하고 또 之·微韻 통압 2회는 王褒 개인에게서만 나타나는 개별적인 현상이어 두 운은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劉宋시기에서는 脂韻과 微韻 두 운은 같은 운부에 속한 반면에 齊·梁·陳·隋시기에서는 之部(脂·之韻)과 微韻(微韻) 두 운부로 나뉘어졌는데, 何大安은 王越과 王力이 제시한 脂韻의 合口舌齒音字인 ‘追誰推衰綏蕤’ 여섯 글자를 微部에 속한다는 사실을 옳다고 하고서 微部에 포함시켰다.

이 시기에서 사용된 合口舌齒音字는 ‘追衰자인데, 脂韻 독용과 脂·之韻 통압 그리고 脂·微韻 통압의 예에서 ‘追衰자를 사용한 예를 통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1	C	4	D	6
B	0	B	0	B	6

4) 何大安, 《南北朝韻部演變研究》, 臺灣大學博士學位論文, 1981년, 210쪽.

- A는 脂韻 독용 중의 平聲의 용례
 B는 合口舌齒音을 사용한 용례
 C는 脂·之韻 통합 중의 平聲의 용례
 D는 脂·微韻 통합 중의 平聲의 용례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시기에서도 脂·微韻 통합 예 7회 중 脂韻의 合口舌齒音字가 사용된 예가 6회를 차지하고 있어 齊·梁·陳·隋 시기와 마찬가지로 微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2) 魚·虞·模韻

	魚	虞	模
魚	19		3
虞		4	6
模			5
* 魚·虞·模 세 운의 통합 4회 <魚·虞·模韻 독용 및 통합 통계표>			

魏·晉·宋시기에서 魚·虞·模 세 운은 통계상으로 보아도 운부를 나눌 수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동일한 작가에서도 독용과 동용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이 세 운 사이에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을 수가 없었다. 北周에서는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魚韻의 독용과 虞·模韻의 통합이 뚜렷하다. 통계상으로 보면 魚韻과 虞·模韻 둘로 나눌 수 있지만, 개별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魚韻 독용한 작가	王褒(3), 庾信(16)
虞韻 독용한 작가	庾信(3), 釋亡名(1)
模韻 독용한 작가	庾信(4), 民歌(1)
魚·模韻 동시 통합한 작가	庾信(3)
虞·模韻 동시 통합한 작가	王褒(1), 庾信(5)
魚·虞·模韻 동시 통합한 작가	庾信(3), 仙道(1)

위의 표에서 우선 王褒는 魚韻 독용, 虞·模韻 통압을 볼 수 있고, 庾信은 비록 魚·虞·模 세 운의 독용 용례도 있지만, 세 운을 통압한 용례도 있다. 그래서 庾信 개인에게 있어서는 세 운을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灰·哈·皆·齊韻

	灰	哈	皆	齊
灰		20		
哈		8	1	
皆			4	
齊				8
<灰·哈·皆·齊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灰·哈·皆·齊 네 운은 魏에서 晉, 晉에서 劉宋에 이르기까지 운부와 운류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위의 표에서 齊韻 독용, 灰·哈韻 동용 현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劉宋시기에서나 齊·梁·陳·隋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皆韻은 劉宋시기에 齊部(齊韻과 皆韻)에 속하였지만, 齊·梁·陳·隋에서는 하나의 운부로 독립하였다. 이 시기에서도 통계상 皆韻과 齊韻의 독용이 뚜렷하여 각각 독립된 하나의 운부로 세울 수 있다.

4) 祭·泰韻

北周에서는 祭韻의 독용 예는 없고 齊韻의 去聲인 霽韻과의 통압 1회만 있다. 대체로 齊韻의 去聲인 霽韻字들은 魏·晉·宋·齊·梁·陳·隋에 祭韻과 동용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 시기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다.

泰韻은 이 시기에서는 독용 예 1회 뿐이다. 魏·晉·宋·齊·梁·陳·隋의 泰部에 泰韻만이 포함되어 있어 이 시기에서도 상황이 같다고 보아진다.

5) 蕭·宵·肴·豪韻

魏晉때 蕭·宵·肴·豪 네 운은 동용하였지만, 劉宋시기에서는 蕭·宵韻과 肴·豪韻으로 나누어졌고, 齊·梁·陳·隋에서는 肴韻이 蕭·宵韻과 합류하여 蕭·宵·肴韻과 豪韻으로 나누어졌다. 다음은 이 시기에서의 蕭·宵·肴·豪 네 운의 독용과 통압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蕭	宵	肴	豪
蕭		6		
宵		1		
肴			2	
豪				5
<北周 蕭·宵·肴·豪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위의 표에 나타난 현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肴韻이다. 齊·梁·陳·隋시기에서 肴韻은 독용의 예도 있지만 대부분 蕭韻 및 宵韻과 동용하였다.

이 시기에 文에서도 肴韻 독용의 예만 나타난다.⁵⁾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肴韻은 하나의 독립된 운부로 간주할 수 있다.

6) 歌·戈·麻韻

魏·晉·宋에서는 歌·戈·麻 세 운은 동용하였지만, 齊·梁·陳·隋에서는 歌·戈韻과 麻韻으로 나누어졌다. 이 시기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齊·梁·陳·隋와 마찬가지로 歌·戈韻과 麻韻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歌	戈	麻
歌	3	14	
戈			
麻			12
<北周 歌·戈·麻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5) 庾信 1회, 釋亡名 1회.

7) 尤·侯韻

魏·晉과 齊·梁·陳·隋 그리고 이 시기에 운부의 변화는 거의 없다. 다만 魏·晉과 宋代에서는 幽韻의 예가 있었지만 이 시기에서는 幽韻의 예가 없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2. 陽聲韻

1) 東·鍾·江韻

劉宋시기와 北魏에서는 東·冬·鍾·江 네 운 모두 동용하였지만, 北齊에서는 東, 鍾 두 운부로 나뉘어졌고, 齊·梁·陳·隋에서는 東, 鍾, 江 세 운부로 나뉘어졌다. 이 시기에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자.

	東	冬	鍾	江
東	23		3	
冬			1	
鍾			11	
江				1
〈東·冬·鍾·江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위의 표를 보면 우선 東韻과 鍾韻의 통압이 있지만, 東韻과 鍾韻의 독용이 뚜렷하여 각각 하나의 운부로 독립한다고 볼 수 있다. 冬韻은 鍾韻과의 통압뿐이어서 鍾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江韻 용례가 독용 1회뿐이어서 하나의 운부로 세울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何大安은 齊·梁·陳·隋시기의 운부를 나누면서 “통계상으로 보면 江韻을 하나의 독립적인 운부로 세울만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⁶⁾라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江韻을 하나의 독립적인 운부로 간주하였다.⁷⁾ 본고에서도 비록 용례가 1회 뿐이지만 다른 운과의 통

6) 何大安, 앞의 책, 137쪽.

압도 없고, 또 史的인 관점으로 보아 江韻을 하나의 운부로 세웠다.

2) 眞·諄·臻·欣·文

	眞	諄	文
眞	11	14	
諄			
文			18
* 眞·諄·欣韻 통압 1회 <北周 眞·諄·文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宋·齊·梁·陳·隋와 마찬가지로 眞·諄 두 운의 동용은 아래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시기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眞·諄·欣韻 세 운의 통압 1회가 있는데, 欣韻은 劉宋시기에서는 文部에 속하였고, 齊·梁·陳·隋에서는 眞部に 속하였다. 何大安은 “欣韻은 齊·梁·陳·隋 시기에 眞·諄·臻韻과 文韻 모두 왕래가 있으나 전자와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眞·諄·臻·欣韻을 합하여 하나의 운부라 한다.”⁸⁾라 하여 欣韻을 眞部に 포함시켰다. 王力은 “欣韻은 文部에 포함되기도 하고 眞部に 포함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제1기에서는 欣韻은 文部에 포함되고, 제2기에서는 眞部に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⁹⁾라 하여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에서는 眞·諄韻과의 통압 뿐이기 때문에 眞部に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元·魂·痕韻

劉宋시기와 齊·梁·陳·隋에서는 元韻과 魂韻의 독용이 있었지만, 동용이 뚜렷하였다. 이 시기에서도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元韻과 魂韻의 동용이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痕韻도 독용의 예는 없

7) 何大安, 앞의 책, 137-8쪽.

8) 何大安, 앞의 책, 146쪽.

9) 王力, 《王力文集》, 제18권 山東教育出版社, 1991년 43쪽

고 元·魂韻과의 통압만 있어 세 운을 합쳐 하나의 운부로 세울 수 있다.

	元	魂
元	1	13
魂		2
*元·魂·痕韻통압 6회 <北周 元·魂·痕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4) 山·先·仙韻

山·先·仙 세 운은 劉宋시기에서는 동용하였다. 이 현상은 齊·梁·隋 시기에서도 계속되어진다. 이 시기에서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先韻과 仙韻의 통압이 뚜렷하여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山	先	仙
山	1		
先		5	21
仙			3
<北周 山·先·仙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그러나 이 시기에 劉宋시기와 齊·梁시기와 구별되는 부분은 山韻이다. 山韻은 齊와 梁 그리고 隋에서 모두 仙·先韻과 통압한 용례가 나타나지만, 이 시기에서는 仙·先韻과의 통압은 물론 세 운의 동시 통압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용례가 적지만 山韻을 하나의 운부로 독립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周祖謨도 “晉宋시기 대다수 작가들은 山韻字를 先·仙韻字와 같이 압운하였다. 그러나 齊梁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르다. 이 시기에서는 山韻字와 先仙 두 운자의 독음이 다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山韻을 하나의 독립된 운부로 나누었다.”¹⁰⁾라 하였다. 이 시기에서는

10) 周祖謨, <齊梁陳隋時期詩文韻部研究>, 《語言文字論文集》, 五南圖書出版公司 1992년, 181-2쪽.

山韻 독용의 용례가 1회 뿐이지만 周祖謨의 견해에 타당성이 있어 山韻을 하나의 독립된 운부로 세울 수 있다.

5) 寒·桓·刪

	寒	桓	刪
寒	4	10	1
桓		1	
刪			6
<北周 寒·桓·刪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魏晉과 劉宋시기의 寒·桓·刪 세 운의 동용이 齊·梁·陳·隋에 이르러서는 寒·桓韻과 刪韻 둘로 나뉘어졌다. 이 시기에서도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寒·桓韻과 刪韻 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6) 陽·唐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唐韻의 독용의 예는 없고 두 운의 통압이 뚜렷하여 두 운은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陽	唐
陽	12	18
唐		
<北周 陽·唐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7) 庚·耕·靑

庚·耕·靑·靑 네 운의 동용은 魏·晉과 劉宋 그리고 齊·梁·陳·隋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시기에서도 아래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耕韻의 독용과 통압의 용례가 없을 뿐, 魏·晉·劉宋 그리고 齊·梁·陳·隋와 별 차이가 없다.

	庚	耕	清	青
庚	3		29	1
耕				
清			2	3
青				3
* 庚·清·青韻 통압 6회 <北周 庚·清·青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8) 蒸韻

비록 蒸韻 독용의 예 1회뿐이지만, 劉宋시기부터 시작된 蒸韻 독용 추세는 이 시기에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9) 登韻

독용의 예 1회뿐이지만 다른 운과의 통압이 없어 하나의 운부로 성립할 수 있다.

10) 侵韻

다른 운과의 통압은 없고 독용의 예 (24회) 뿐이다.

11) 談·咸韻

劉宋시기와 齊·梁·陳·隋에서는 談韻과 咸韻의 독용과 통압의 예가 보이지 않는데, 이 시기에서는 談·咸韻의 통압 1회만 보인다.

3. 入聲韻

1) 屋·燭韻

魏晉시기에 屋韻 내에 1等韻과 3等韻의 구분이 있었지만 劉宋시기와 齊·梁·陳·隋에서는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北魏와 北齊에서는 魏晉처럼

1等韻과 3等韻의 구분이 있었다. 이 시기에서는 1等韻과 3等韻의 통압만 1회 있을 뿐이어서 屋韻 내에 구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燭韻은 齊·梁·陳·隋에서는 하나의 운부로 독립하였는데, 이 시기에서도 燭韻 독용뿐이어서 독립한다고 볼 수 있다.

2) 質·櫛韻

이 시기에서는 質韻의 독용 1회와 質·櫛韻 통압 1회만 있어 이 시기에서는 質·櫛 두 운은 동용한다고 볼 수 있다.

3) 薛韻

劉宋과 齊·梁·陳·隋의 屑部에서는 屑韻과 薛韻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시기에서는 薛韻의 독용 예 뿐이다.

4) 藥·鐸·覺韻

이 시기에서는 鐸·藥·覺韻 통압 예 1회 뿐이다. 劉宋시기와 齊·梁·陳·隋에서 藥韻과 鐸韻은 같은 운부에 속하였지만, 劉宋시기에 覺韻은 屋部에 속하였고, 齊·梁·陳·隋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운부였다. 그리고 北魏와 北齊에서는 覺韻의 독용과 통압의 예가 없다. 운부로 설정하기에 용례가 불충분하지만 세 운을 합쳐 하나의 운부로 세울 수밖에 없다.

5) 陌·昔·錫·麥韻

劉宋시기에서는 昔韻과 錫韻의 독용이 있었지만 陌·昔·錫·麥 네 운 사이의 상호 통압이 통계상 더 많고 또 네 운 사이의 구분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齊·梁·陳·隋에서도 이 네 운은 서로 동용하였다. 이 시기에서는 昔·陌韻 통압 2회, 昔·錫韻 통압 1회 그리고 昔·錫·陌韻 통압 1회 있다. 이 시기에서도 이 네 운 사이의 구분점을 찾을 수 가 없다.

6) 職·德韻

이 시기에서는 職韻 독용 1회와 德韻 독용 1회의 예 뿐이다.

Ⅲ. 結 言

각 운의 독용과 통압 상황으로 分部한 결과 北周에서는 陰聲韻 17운부, 陽聲韻 16운부, 入聲韻 8운부 모두 41운부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北周의 각 운부와 포함된 운류는 다음과 같다.

1) 陰聲韻

1. 支部 - 《廣韻》 支韻
2. 佳部 - 《廣韻》 佳韻
3. 之部 - 《廣韻》 之韻과 脂韻
4. 微部 - 《廣韻》 微韻
5. 魚部 - 《廣韻》 魚韻
6. 虞部 - 《廣韻》 虞韻과 模韻
7. 哈部 - 《廣韻》 灰韻과 哈韻
8. 齊部 - 《廣韻》 齊韻
9. 皆部 - 《廣韻》 皆韻
10. 祭部 - 《廣韻》 祭韻 및 齊韻의 去聲
11. 泰部 - 《廣韻》 泰韻
12. 蕭部 - 《廣韻》 蕭韻과 宵韻
13. 豪部 - 《廣韻》 豪韻
14. 肴部 - 《廣韻》 肴韻
15. 歌部 - 《廣韻》 歌韻과 戈韻
16. 麻部 - 《廣韻》 麻韻
17. 尤部 - 《廣韻》 尤韻과 侯韻

2) 陽聲韻

1. 東部 - 《廣韻》 東韻
2. 鍾部 - 《廣韻》 鍾韻
3. 江部 - 《廣韻》 江韻
4. 眞部 - 《廣韻》 眞韻과 諄韻 그리고 欣韻
5. 文部 - 《廣韻》 文韻
6. 元部 - 《廣韻》 元韻과 魂韻 그리고 痕韻
7. 先部 - 《廣韻》 先韻과 仙韻
8. 山部 - 《廣韻》 山韻
9. 寒部 - 《廣韻》 寒韻과 桓韻
10. 刪部 - 《廣韻》 刪韻
11. 陽部 - 《廣韻》 陽韻과 唐韻
12. 庚部 - 《廣韻》 庚韻과 淸韻 그리고 靑韻
13. 蒸部 - 《廣韻》 蒸韻
14. 登部 - 《廣韻》 登韻
15. 侵部 - 《廣韻》 侵韻
16. 談部 - 《廣韻》 談韻과 咸韻

3) 入聲韻

1. 屋部 - 《廣韻》 屋韻
2. 燭部 - 《廣韻》 燭韻
3. 質部 - 《廣韻》 質韻과 櫛韻
4. 薛部 - 《廣韻》 薛韻
5. 藥部 - 《廣韻》 藥韻과 鐸韻 그리고 覺韻
6. 昔部 - 《廣韻》 昔韻과 錫韻 그리고 陌韻과 麥韻
7. 職部 - 《廣韻》 職韻
8. 德部 - 《廣韻》 德韻

그리고 北魏, 北齊와 齊·梁·陳·隋의 운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陰聲韻

	北魏		北齊		北周		齊·梁·陳·隋
1	支(支)	1	支(支)	1	支(支)	1	支(支)
				2	佳(佳)	2	佳(佳)
2	之(之)	2	之(之)	3	之(之脂)	3	之(脂之)
3	脂(脂微)	3	微(微)	4	微(微)	4	微(微)
		4	脂(脂)				
		5	魚(魚)	5	魚(魚)	5	魚(魚)
4	魚(魚虞模)	6	模(模)	6	模(虞模)	6	模(虞模)
		7	虞(虞)				
5	哈(灰哈皆)	8	哈(灰哈皆)	7	哈(灰哈)	7	哈(哈灰)
				8	皆(皆)	8	皆(皆)
6	齊(齊)	9	齊(齊)	9	齊(齊)	9	齊(齊)
7	祭(祭霽)	10	祭(祭霽)	10	祭(祭霽)	10	祭(祭霽)
8	泰(泰)			11	泰(泰)	11	泰(泰廢)
9	豪(豪肴)	11	豪(豪)	12	豪(豪)	12	豪(豪)
				13	肴(肴)		
10	蕭(蕭宵)	12	蕭(蕭宵肴)	14	蕭(蕭宵)	13	蕭(蕭宵肴)
11	歌(歌戈)	13	歌(歌戈)	15	歌(歌戈)	14	歌(歌戈)
12	麻(麻)	14	麻(麻)	16	麻(麻)	15	麻(麻)
13	尤(尤侯)	15	尤(尤侯)	17	尤(尤侯)	16	尤(尤侯幽)

2. 陽聲韻

	北魏		北齊		北周		齊·梁·陳·隋
1	東(東3)	1	東(東)	1	東(東)	1	東(東)
2	鍾(東, 鍾江冬)	2	鍾(鍾江)	2	鍾(鍾)	2	鍾(鍾冬)
				3	江(江)	3	江(江)
3	眞(眞諄臻欣)	3	眞(眞諄臻欣)	4	眞(眞諄欣)	4	眞(眞諄臻殷)
4	文(文)	4	文(文)	5	文(文)	5	文(文)
5	元(元)	5	元(元魂)	6	元(元魂痕)	6	元(元魂欣)
6	魂(魂痕)						
7	先(先仙)	6	先(先仙)	7	先(先仙)	7	先(先仙)
				8	山(山)	8	山(山)
8	寒(寒桓)	7	寒(寒桓)	9	寒(寒桓)	9	寒(寒桓)
9	刪(刪)	8	刪(刪)	10	刪(刪)	10	刪(刪)
10	陽(陽唐)	9	陽(陽唐)	11	陽(陽唐)	11	陽(陽唐)
11	庚(庚耕清青)	10	庚(庚耕清青)	12	庚(庚清青)	12	庚(庚耕清青)
12	蒸(蒸)	11	蒸(蒸)	13	蒸(蒸)	13	蒸(蒸)
				14	登(登)	14	登(登)
13	侵(侵)	12	侵(侵)	15	侵(侵)	15	侵(侵)
						16	覃(覃)
				16	談(談咸)	17	談(談)
14	鹽(鹽添)	13	鹽(鹽添)			18	鹽(鹽添)
						19	(嚴凡)

3. 入聲韻

	北魏		北齊		北周		齊·梁·陳·隋
1	屋1(屋1)	1	屋1(屋1)	1	屋(屋)	1	屋(屋)
2	屋3(屋3)	2	屋3(屋3)	2	燭(燭)	2	燭(沃燭)
3	燭(燭)	3	燭(燭)			3	覺(覺)
4	質(質)	4	質(質,術,櫛)	3	質(質,櫛)	4	質(質,術,櫛,迄)
						5	物(物)
5	月(月,沒)	5	月(月)			6	月(月,沒)
6	薛(薛)	6	薛(薛,屑)	4	薛(薛)	7	屑(屑,薛)
						8	曷(曷,末)
						9	黠(黠)
						10	鎋(鎋)
7	藥(藥,鐸)	7	藥(藥,鐸)	5	藥(藥,鐸,覺)	11	藥(藥,鐸)
8	昔(昔,錫)	8	昔(昔,錫,陌)	6	昔(陌,麥,錫,昔)	12	陌(陌,麥,錫,昔)
9	職(職)	9	職(職)	7	職(職)	13	職(職)
10	德(德)	10	德(德)	8	德(德)	14	德(德)
11	緝(緝)					15	緝(緝)
12	合(合)					16	合(合)
						17	盍(盍)
13	葉(葉,帖)	11	葉(葉,帖)			18	葉(葉,帖)
						19	業(業,乏)

<參考文獻>

- 《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逢欽立 輯校，木鐸出版社，1983，臺灣
- 《全漢三國晉南北朝詩》，丁福保，世界書局，1978，臺灣
- 《全上古秦漢魏晉南北朝文》，嚴可均，世界書局，1982，臺灣
- 《互註校本宋本廣韻》，余迺永 校著，聯貫出版社，1980，臺灣
- 《南北朝文學史》，曹道衡 沈玉成，人民大學出版社，1991，北京
- 《魏晉南北朝民族史》，白翠錦，四川民族出版社，1996，中國
- 《魏晉南北朝史》 勞幹，中國文化大學出版部，1980，臺灣
- 《中國古代語言學史》，何九盈，廣東教育出版社，2000，中國
- 《漢語音韻學》，董同龢 著，孔在錫 譯，凡學圖書 1975，서울
- 《方言與中國文化》，周振鶴 游汝杰，上海人民出版社，1986，上海
- 《兩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 第一分冊，羅常培 周祖謨，科學出版社，1958，北京
- 《魏晉音韻研究》，丁邦新，《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六十五》，1975，臺灣
- 《漢魏六朝韻譜》，于安瀾，何南人民出版社，1898，中國
- 《龍蟲並雕齋文集》，王力，中華書局 1980，中國
- 《周祖謨學術論著自選集》，周祖謨，北京師範學院出版社，1993，北京
- 《語言文字論文集》，五南圖書出版公司 1992，臺灣
- 《南北朝韻部演變研究》，何大安，臺灣大學博士學位論文 1981，臺灣
- <魏晉詩韻考>，林炯陽，《師大國文研究所集刊》 16期，1972，臺灣
- <魏晉南北朝之脂支三部及東中二部之演變>，王越，《國立中山大學文史學研究所月刊》 第1卷 2期，中國

〈中文提要〉

在漢語史上，魏晉南北朝是大變革期。這時代，由於頻繁的戰爭、建國和興衰、大規模的人口遷移，在漢語方面上北方語和南方語互相融合現象出現了。還有文人們關於語言認識起來。所以這時期是能夠糾明上古音到中古音之音韻演變的重要的時代。

本稿以《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為考察材料，聯繫北周時期詩人使用的詩的押韻情況，分析其可以類分幾個韻部，以及每一韻部裏面有什麼韻類，進而考察比較北魏和北齊以及齊梁陳隋時代的韻部起來有什麼樣的差異。

結論認為，北周可以類分出陰聲韻17韻部、陽聲韻16韻部、入聲韻8韻部。

주제어 : 韻部, 韻類, 개별적 특성, 통합관계

